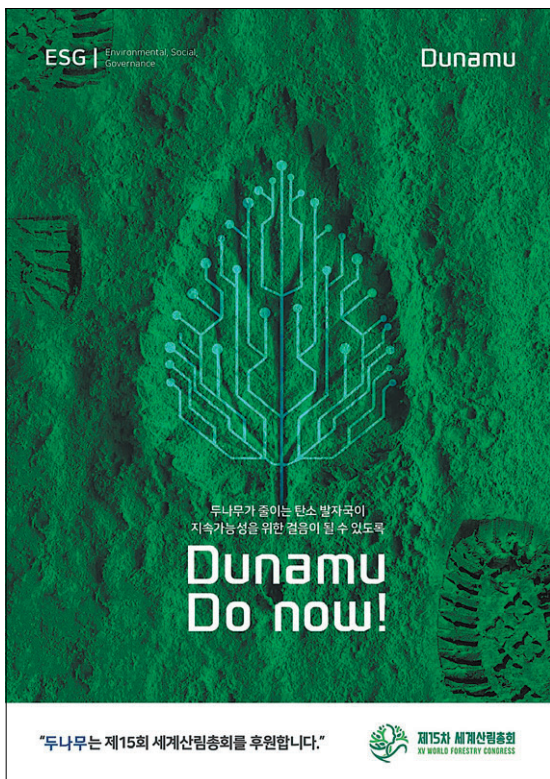


두나무, 미래 세대 위한 ‘ESG 경영’ 앞장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나무’와 ‘청년’이라는 테마로 실천 중인 지속가능경영이 주목받고 있다. ‘세상에 이로운 기술과 힘이 되는 금융으로 미래 세대에 기여한다’는 경영 이념 아래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분산, 분배, 합의규칙 등의 가치를 담았다.

산림청과 탄소중립 실현 위한 민관협력 가상 나무 1그루=실제 나무 2그루 식수 ‘메타버스 산림 캠페인’ 2만8000명 동참

발달장애 예술가들에 새로운 판로 제공 작품 NFT 발행, 판매 수수료 전액 기부 ESG 경영위 출범, 지속가능경영 가속화



세계산림총회 후원 포스터.

사진제공 | 두나무



두나무가 '나무'와 '청년'이라는 테마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 중이다. NFT로 발행한 이규재 작가의 '봄이라구요', 서은정 작가의 '안녕, 친구야', 박병준 작가의 '자유로운 동물들의 세계' (왼쪽부터).

● '나무'와 '청년'이 ESG 테마

먼저 친환경과 저탄소 시대를 맞아 사명에서 유래한 '나무'를 키워드로 해 산림자원 회복과 지구 환경 보전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2월 산림청과 '탄소중립활동과 ESG 경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협력 모델이다.

양측은 국내·외 산림사업 공동 검토와 민관협력, 기업의 탄소중립과 친환경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산림효과 지표발굴 및 디지털 기술 연계 방안 공동 검토, 탄소 중립 행사 및 주요 국제행사 개최에 관한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한다.

협약의 첫 걸음으로 3월 21~25일 두나무의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에서 '세컨포레스트와 함께하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열었다. 경북 산불 피해 지역 대상 산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세컨블록 내 조성된 가상의 숲 세컨포레스트에 입장해 가상 나무 1그루를 심으면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실제 나무 2그루를 식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2만8000여 명이 동참했으며, 비대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류의 장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 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산림 분야 국제회의인 세계산림총회(WFC)에 후원사로 참여한다. 직접 전시 부스를 설치해 세컨포레스트 체험 이벤트를 비롯해, 자회사 람다256의 친환경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인 투니버스를 소개한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실천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요 사항"이라며 "향후 산림 회복과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4월20일 장애인 날에는 청년 사업 일환으로, 발달장애 예술가의 작품을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로 발행해 판매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 예술가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

기 위함이다.

이규재 작가의 '봄이라구요', 서은정 작가의 '안녕, 친구야', 박병준 작가의 '자유로운 동물들의 세계' 등이 대상으로, 아티스트 각자의 재능을 살려 그래픽 디자인, 서양화, 추상화 형식으로 제작했으며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담았다. NFT 판매 수수료는 발달장애 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만들기 위한 기금으로 전액 사용한다.

이 대표는 "뛰어난 발달장애 아티스트의 작품을 대중에게 알리고, 청년 창작자들의 열정에 힘을 보탬 수 있어 뜻 깊다"고 했다.

● ESG 경영위원회 공식 출범

두나무는 지속가능경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월22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ESG 경영위원회를 발족한 곳은 두나무가 최하다. 기업의 재무적 요소인 ESG를 고려한 경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치형 회장이 위원장을, 김형년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또 이석우 대표(CEO), 임지훈 최고전략책임자(CSO), 정민석 최고운영책임자(COO), 남승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으로 구성했다.

ESG 경영위원회의 핵심과제는 함께하는 기후변화 행동, 상생하는 기술과 금융, 책임경영과 투명한 지배구조 등이다. 이를 위해 ESG 전략 관련 기본 방향 설정, ESG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ESG 관련 활동의 실행 계획에 대한 검토, ESG 관련 활동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수행한다.

회사는 측은 "이번 ESG 경영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ESG 경영 체계를 공고히 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장기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글로벌 모닝브리핑 방송 모습.

사진제공 | 미래에셋증권

“투자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모닝브리핑’ 개편

미래에셋증권이 2일 유튜브로 진행하는 생방송 투자 정보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빠르고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화를 짚어주는 글로벌 모닝브리핑의 생방송 시간을 평일 오전 8시에서 오전 7시30분으로 앞당겼다. 글로벌 팩트체크 코너를 통해 매일 글로벌 시장 특징주의 흐름을 대형 발광다이오드(LED)월을 활용해 직관적이고 임팩트 있게 브리핑한다.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관심이 높은 만한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최근 뉴스 분석 및 해외 주요 기관들의 코멘트들도 한눈에 정리한다. 또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지표와 제품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등 시장에 영향력 있는 인사의 발언을 분석해 시장을 단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준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장은 “글로벌 주식시장 상황을 키워드로 짚기에 누구나 시장 변화 요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면 글로벌 지표들을 접하면서 보다 넓게 시장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서울 서초구 소재 반포자이프라자 2층에 반포WM(자산관리) 지점을 오픈했다. VIP고객이 밀집한 반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운영한다. 인근에 위치한 투자센터서초WM과 업무 및 상담 공간을 공유하는 스마트오피스 형태로 구성해 양 점포의 접근성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도모하도록 했다.

사내 해외주식투자 전문가로 인정받는 장의성 지점장을 발탁해 글로벌 자산 배분에 기반한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의성 미래에셋증권 반포WM 지점장은 “VIP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와 토탈 금융 솔루션 제공을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하나금융,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캠페인

하나금융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 파워온 스토어 캠페인’을 실시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불평등 해소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온 케어’ 사업의 일환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지원금, 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마케팅 지원을 위한 1:1 맞춤 컨설팅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캠페인 참여는 소상공인의 직접 신청 및 고객이 추천하고 싶은 상점 사진과 사연을 개인 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상상인저축銀, 수신 상품 금리 인상

상상인저축은행이 회전정기예금과 정기예금 등 수신 상품 금리를 인상했다.

먼저 회전정기예금은 10만 원 이상 가입 가능하며, 가입 후 12개월 주기로 약정이율이 변동된다. 모바일뱅크 뱅뱅뱅크를 통한 비대면 가입 시 최초 연 2.86%의 약정이율이 적용된다. 가입기간 내 금리가 오를 경우, 금리가 상향 적용된다. 가입기간은

24개월부터 60개월까지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지점을 통한 대면 가입 시 최초 2.76%의 금리를 제공한다.

정기예금은 10만 원 이상 가입 가능하며, 비대면 가입 시 12개월 기준 연 2.83%의 약정 이율이 적용된다. 대면 가입 시 연 2.72%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인섭 상상인저축은행 대표는 “고객에게 보다 큰 혜택을 제공하고 서민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수신금리 인상을 결정했

다”고 했다.

롯데카드, 가정의 달 할인 이벤트

롯데카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31일까지 터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터치는 고객의 성향 및 소비 패턴, 선호 가맹점 등을 분석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투어비스에서 7만 원 이상 결제 시, 특가 할

인 및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제주패스 렌터카 앱·홈페이지에서 렌터카를 예약하면 10%를 즉시 할인, 최종 결제금액이 5만 원 이상 시 5%를 추가 할인해 준다.

더러온지멤버스 제휴 골프장에서 아메리칸노 커피 4잔 이용권을 50%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 반려동물 플랫폼 어바웃펫에서 4만 원 이상 결제 시 1만 원 할인 혜택을 준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5월 3일 (화) 음력: 4월 3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생각대로 실행하라. 좋은 결과가 온다.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득이 돌아오지 않겠다. 매매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를 보게 되니 내일 행하라. 취침 시 북서방향으로 머리를 향하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욕심을 너무 크게 갖지 말라.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운일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뗏목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옥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바라지 말고 분수에 맞는 일만 하라.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망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하기 필요한 때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아가라.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시도하라.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쉬운 때이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떠나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게 행동을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처음은 불안하다.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시시한 일들로 인해 해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급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만 야기시킨다. 상대의 입장을 살펴 보아라.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냘프지만 나중엔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거망동을 삼가 하라. 손을 안 대도 될 것을 자꾸 건드린다.		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많은 때이다. 처음은 곤란하지만 우물쭈물 밀박박은 흐려도 위 일수록 맑듯이 시일이 지날수록 점차 좋아지게 된다. 지출이 심하니 잘 조절하라 은행 대출은 기다리면 된다. 소송사건은 오래 가겠다.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욕심부리지 말라.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17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부장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